

<서평>

The Japanese Translations of the Hebrew Bible: History, Inventory and Analysis

(Doron B. Cohen, Leiden: Brill, 2013)

장석정*

1. 머리말

한글성경 번역이 최초로 완성된 것은 『성경전서』가 출간된 1911년이다. 그러나 이 최초의 한글번역 성경이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아직 체계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다. 그 결과 이 최초의 한글성경의 번역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일본어 번역 역사에 관한 도론 코헨(D. B. Cohen)의 본 저서가 2013년에 출간되었다. 한글성경의 번역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필자로서는 참으로 부럽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연구가 한글성경 번역에 관해서도 반드시 시도되고 완성되어야 한다는 결단을 하게 하는 동시에, 본 저서가 일본어 성경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의 성경 번역사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¹⁾

*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구약학 교수. schang15@cku.ac.kr.

1) 한글성경의 번역에 관한 기본적인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구약의 말씀과 현실: 심천 김중은 구약학공부문집』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1-55; 김중은, “구약 국역사에서 Alex A. Pieters의 위치와 의의”, 『구약논단』 27 (2008), 159-182; 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자료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이만열,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민영진,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5);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1945-2002』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0).

본 저서는 이런 종류의 연구서 중에서 영어로 된 첫 번째 책이며 성경을 일본어로 번역한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특히 히브리어 성경(=구약성경)²⁾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저서는 일본어 완역본 구약성경과 부분 번역 성경들의 상세한 목록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성경들의 완성 과정과 번역자들의 정체(identity)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다양한 번역 성경들로부터의 수많은 인용문들은 히브리어 원문과 다른 역본들과 비교 검토되었고, 언어학적, 신학적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히브리어 성경과 일본 사이의 언어적, 문화적 틈을 번역자들이 연결시켜주는 방법들을 알려주었으며, 그들의 번역 성경들이 일본 사회의 특정한 측면들과 일본 사회속에서의 성경의 위치를 반영해 주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2. 저자 소개

본 저서의 저자는 도론 코헨인데, 1957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으며, 히브리 대학에서 학사학위(1988년)를 받았고, 일본 교토에 위치한 동지사(同志社, Doshisha)대학교 신학과에서 “The Theological Problem of the Silence of God”이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1993년)를 받고, 2011년에 Th. D. 학위를 이 대학교에서 받았으며, 현재 신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동지사대학교에서 코헨 교수는 히브리어, 히브리 문학, 성서학, 유대교, 일본 기독교역사 등을 학부와 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또한 그는 종교와 문학에 관한 2권의 연구서와 21편에 이르는 논문들을 학술지에 게재해 왔으며, 일본 소설과 시를 히브리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저자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어에는 능통하고 일본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후 적어도 30년 동안 일본에서 공부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일본어도 상당히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일본 기독교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사본학이나 번역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본 연구서의 내용 중에서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본 저서가 다루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일본어 번역이라는 주제와 저자의 전공 분야 사이의 괴리는 본 연구서가 성취할 수 있는 학문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2) 본 저서의 제목에는 ‘히브리어 성경’(Hebrew Bible)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정작 저서의 본문에는 ‘히브리어 성경’과 ‘구약성경’이 혼용되어 있다.

3. 저서의 구성과 내용

3.1. Part One

3.1.1. 제1장: 서론

본 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째 부분(Part One)에서는 일본어 성경 번역 역사와 관련 항목들을 3개의 장들(제1장-제3장)에서 다루고 있다. 이 첫째 부분은 제1장 서론으로 시작되는데, 이 서론에는 4개의 단락들이 포함된다. 이중 가장 먼저 나오는 1.1에서는 “일본에서의 성경”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다. 기독교 선교라는 틀 속에서 히브리어 성경이 일본에 소개되었는데, 이 사실이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과 연구, 그리고 현대 일본 사회에 흡수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효과를 보여 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1.2에서는 “일본에서의 기독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16세기와 17세기 초에 가톨릭 선교의 도래가 그 시작이었고, 이는 일본 땅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1.3에는 저자가 “번역”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바벨탑만 큼이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항상 어떤 내용이 사라지기 마련이며, 특히 성경을 번역하는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문제들이 더욱 첨예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종교적인 용어의 경우에는 번역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kami*(神)는 일본어에서 실제로 무슨 뜻인가를 묻고 있다. 이것이 *'elohim*이나 *Theos*, 혹은 *God*와 같은 의미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고 있다. 단어의 뜻은 시간과 용법에 따라서 변하고, 몇 개 층의 의미들이 서로 다른 시대에 합쳐지거나 사라진다. 일본어의 다양한 종류의 존칭들은 성서 번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진다. 언어와 신학을 모두 포함하는 이슈들이 2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저자는 히브리어 관용구와 문장들을 일본어로 번역할 때의 문제점은 이 두 개의 언어들이 너무 다르고 연관성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히브리어 동사 체계와 구문과 그 밖에 다른 많은 언어학적 특징들은 일본어로 번역될 때 어떻게 되는가? 특정한 문화적 맥락(context)을 가진 단어들, 일본어에는 그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인가? 번역을 할 때, 히브리어 본문뿐만 아니라, 중국어, 영어, 라틴어 그리고 성경의 다른 번역본들(versions)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1.4에서는 이 연구의 범위와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 연구는 일본 내에서의 문화적 영향이나 흡수 방식 혹은 성경의 이미지 등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초점은 구약성경의 번역에 맞춰지며 특히 상이한 여러 일본어 번역들과 구절들을 비교하고, 히브리어 본문과 다른 자료들과도 비교하여, 이런 비교를 통해 특정한 번역의 본질과 일본어로 번역되는 것의 경향과 특이성에 관하여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배우려는 것이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3.1.2. 제2장: 성경 번역의 역사적 검토

제2장에서는 일본에서의 성경 번역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져 있다. 기리시탄(Kirishitan)³⁾ 시기의 부분적인 성경 번역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종교적인 용어들과 ‘하나님’(God)에 대한 중국어와 일본어 단어들의 번역에 있어서의 어려움들을 논의하고 있다. 다음에는 중국에서의 성경 번역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이런 중국에서의 번역 사업들의 결과가 일본어로 번역되는 초창기 동안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다음의 내용은 성경의 일본어 번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인데, 먼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그리고 2차 세계대전 후의 시기에서 21세기의 첫 10년 동안까지의 기간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19세기에 관한 내용 중 일부에는 변화가 있었던 일본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3.1.3. 제3장: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들

제3장에서는 일본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의 전체 또는 일부의 상세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3장이 전체 연구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Part Two의 출발점이 된다. 구약성경의 각 책들은 전체가 번역되거나 일부가 번역되었는데, 이렇게 번역된 결과물들은 책 형태로 출판되거나 잡지 속에 게재되었다. 창세기의 경우를 보면 세 가지 번역 성경들이 전체 창세기를 번역했으며, 두 가지는 거의 전체를 번역했고 세 가지는 부분적으로 번역을 했다. 욥기의 경우 두 가지는 전체를 번역했고, 세 가지는 부분적으로 번역했다. 잠언의 경우에는 네 가지가 전체를 번역했으며, 한 가지는 부분적으로만 번역했다. 이런 번역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독교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구약성경 책들인 시편, 창세기, 이사야이고, 가장 강력한 ‘문화적’ 호소력을 보여주는 지혜의 책들인 잠언과 욥기가 그것들이다.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의 일본어 번역은 1887년에 출간된 <메이지역>(明

3) 1549년 예수회의 선교사 사비에르의 포교 이래 일본에 전파된 기독교 신도들을 의미한다.

治元訳, The Meiji Translation)인데, 1876년 10월 30일 동경에서 서로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을 위한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성경 협회(The Bible Societies of Great Britain and Scotland)가 이 번역 사업을 후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번역위원회는 제대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1878년 5월에 열린 성경협회 회의 이후 번역위원회는 해산하고 새로운 번역위원회에 그동안의 번역 작업 성과들을 넘겨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탄생한 번역위원회는 헵번(J. C. Hepburn)을 의장으로 시작되었지만 처음 4년 동안은 거의 번역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따라서 1882년 새로운 전략을 세웠는데, 서로 다른 작은 영구적 번역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헵번, 베르벡(G. F. Verbeck), 파이슨(P. K. Fyson)으로 이루어졌다.

1883년에 이 영구적 번역위원회는 일본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어 성경 번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여기에는 마쥬야마(Matsuyama Takayoshi), 우에무라(Uemura Masahisa), 그리고 이부카(Ibuka Kajinosuke)가 포함되었다.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은 1887년 완성되었고 1882년부터 1887년까지 위원회는 28권의 각 성경책들을 출판했다.

헵번에 따르면, 번역자들은 히브리어 본문에 의거해서 번역했고 또한 다른 자료들도 사용했다. 번역자들이 히브리어를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는 모호하다. 헵번의 편지(1879)에 보면 그 자신이 히브리어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그의 편지(1885)에서는 자신이 그리스어와 라틴어 외에 히브리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서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적고 있다.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헵번은 성서 히브리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으나 히브리어에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헵번보다는 베르벡이 히브리어에 대해서는 더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편지(1881)에서 자신의 히브리어가 대가들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읽을 수 있을 정도는 되며, 독일어와 화란어, 그리고 불어도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파이슨은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생으로 실력 있는 성서학자로 평가받았다. 이렇게 번역 위원회 구성원들의 히브리어 실력에 대한 기록도 소상하게 조사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성경전서』(1911)의 번역위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현재는 이 번역위원회 구성원들이었던 선교사들과 한국인 조력자들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이다.

<메이지역>은 일본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수 세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번역 성경은 일본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개신교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지식인들과 작가들에게 팔목할 만한 영향을 주었다. 시편, 아가, 이사야의 번역 본문들은 특별한 찬사를 받았으며, 일본 운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신약성경과는 다르게 구약성경은 개정된 적이 없으며 거의 80년 동안 처음 번역된 그대로 사용되었다.

본 저서는 나머지 11가지의 일본어 성경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번역 과정과 특성들을 설명해 주고 있으며, 93쪽부터는 책 형태로 출간된 부분적인 번역 성경들 16가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이어지는 115쪽부터는 잡지 등에 실린 부분적인 번역들 총 13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마지막 부분에는 이전의 번역 성경들을 사용해서 다시 출간된 성경들 6가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구약성경의 각 책들의 전체가 번역된 12가지의 일본어 번역 성경들 중에서 오직 두 가지만 신약성경과 독립적으로 출판되었으며, 이 두 가지 번역들도 신약성경의 상응하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한 가지는 ‘가톨릭 <사포로역>’(Catholic “Sapporo Translation”)인데, 1950년대에 출판된 것으로서 1910년에 나온 라게(Emile Raguét)의 신약성경 번역에 대한 보충적인 번역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다른 한 가지는 세키네(Sekine Masao)의 번역인데, 그는 구약성경에 그의 유명한 경력의 초점을 맞췄지만, 그의 경우에도 신약성경의 상응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 두 가지 구약성경의 번역의 경우에 신약성경과 함께 번역되었으나, 언제나 신약성경이 먼저 출판되었다.

구약성경과 독립적으로 번역된 신약성경 번역본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 2차 대전 이후의 번역들은 개신교 <구어역>(The Colloquial Translation)이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 사회 운동가인 가가와 토요히코(Kagawa Toyohiko)에 의해 시작되었고, 1952년에 출판되었다. 희랍어와 일본어로 된 번역은 13권으로 출판되었다(1973-1990년). 그리고 세 가지의 독립적인 신약성경들이 1980년대에 출판되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은 1994년에 간행된 ‘일본어 6개 대조판’(The Japanese Hexapla)이다. 이 두꺼운 책은 희랍어 원문과 6가지의 일본어 번역 성경들을 양면에 실었다. 그 6가지의 성경들은 다음과 같다: <메이지역>(1887)⁴⁾, 러시아 정교회 번역(1901), 라게의 가톨릭 번역(1910), <타이쇼 개정역>(The Taisho Revised Translation, 1917), <JBS 관용어역>(The JBS colloquial translation, 1954), 그리고 <성서 신공동역>(The New Interconfessional Translation, 1987).

4) <메이지역>은 1887년에 출간되었으나, 본 저서에서는 144쪽에서 1880년으로 잘못 표기했다.

3.2. Part Two

Part One에서 역사와 항목들을 다루었다면, Part Two에서는 “번역된 성경 구절들에 대한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4개의 장들(제4장-제7장)을 통해서, 특정한 구약성경 구절들의 다양한 일본어 번역들이 분석되고 서로 비교되고, 히브리어 본문과 다른 언어로 번역된 자료들의 번역과 비교 분석되었다. 비교할 성경 구절들을 선택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왜냐하면 어떤 성경 구절의 번역이라고 해도 흥미로운 분석과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철저한 분석을 위해 인용된 구절들의 수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어 번역을 인용할 때, 일본어와 이에 대한 알파벳의 음역(transliteration)을 함께 제시했는데, 후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1) 대부분의 일본어 번역에 붙어 있는 ‘후리가나 독법’(furigana⁵⁾ reading)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는 종종 ‘간지문자들’(kanji⁶⁾ characters)의 어떤 것들에 있어서 예상 밖의 발음을 보여준다. 2) 일본어 알파벳에 능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서 음역을 기록해 둔 것이다. 성경 구절들은 원 히브리어 철자(script)로 인용되었으며, 필요한 때는 음역도 했다. 동시에 영어 번역도 인용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 라틴어와 중국어로도 인용되었다.

3.2.1. 제4장: 신명기 32:8-9의 일본어 성경들 비교

Part II의 첫 장은 제4장인데, 여기서는 신명기 32:8-9의 번역에 초점을 맞추고, 히브리어 성경 전체가 다 번역된 일본어 성경 12가지를 비교해 놓았다. 특별히 이 구절이 선택된 것은 성경 이외의 고대 자료에 따르면, 마소라 본문(MT)은 이 구절에서 유일신교에 관한 신학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후대편집자들에 의해 수정(emend)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어 번역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그것들의 신학적인 입장과 그에 따른 본문의 수정에 대한 접근 방법들을 보여준다. 4장에서 비교된 12가지 번역본들은 다음과 같다.

5) 후리가나(일본어: 振り仮名) 또는 요미가나(일본어: 読み仮名)는 일본어 표기에서, 어떤 단어나 글자(보통 한자)의 읽는 법을 주위에 작게 써 놓은 것을 뜻한다. 개요 가로쓰기인 경우 일반적으로 글자 위에, 사전의 경우는 단어 뒤에, 세로쓰기인 경우 글자의 오른쪽에 주로 쓴다.

6) ‘간지’는 일본어 한자를 뜻한다.

- A-1. <메이지역>(The Meiji Translation, 1887)
- A-2. <구어역>(The Colloquial Translation, 1955)
- A-3. <사포로역>(The Sapporo Translation, 1954)
- A-4. <세키네역>(The Sekine Translation, 1956년 번역시작, 1993년 신명기 출간)
- A-5. <프란시스코회역>(Studium Biblicum Franciscanum, 1958-1989년)
- A-6. <발바로역 I>(Barbaro I, 1958-64)
- A-6a. <발바로역 II>(Barbaro II, 1980)
- A-7. <신개역>(New Revised Translation, 1970)
- A-8. <생명의 말씀-설명판>(The Living Bible-Paraphrased, 1978)
- A-9. <신세계역>(New World Translation, 1982)
- A-10. <현대일본성경>(Modern Japanese Bible / Oyama Reiji, 1983)
- A-11. <성서 신공동역>(New Interconfessional Translation, 1987)
- A-12. <이와나미 출판사역>(Iwanami Shorten Translation, 2001)

본문 수정에 대한 접근 방법에 관해서 창세기 4:8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은 하나의 시험적 경우로서의 역할을 한다. 4장을 통틀어서 수많은 문법적이고 문체적인 이슈들이 논의되고, 동시에 일본어 번역에 있어서 존칭의 용법과 신성한 네 글자(Tetragrammaton)의 음역과 같은 중요한 질문들도 다루어지고 있다.

각각의 번역 성경들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신명기 32:8-9의 MT를 소개하면서 “children of Israel”(benei Israel)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이 구절에 대한 KJV의 번역을 보여주면서 MT를 그대로 “children of Israel”로 번역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The New Jerusalem Bible (1985)에서는 MT와는 다르게 수정해서 “children of God”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s Translation (1985)에서는 MT와 같이 “children of Israel”로 번역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작 MT에 대한 구문 연구나 관용적 표현, 문장 구조 등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저자가 구약신학이나 히브리어 문법을 전공하지 않았고, 일본의 종교사 전공인 관계로 이런 문법적인 부분보다는 히브리어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그 단어의 다양한 번역을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면에서 일본어 번역 성경들을 히브리어 원문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저자가 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일본어 번역 성경은 <메이지역>(1887)인데, 먼저 일본어 본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영어 알파벳 음역을 밑에 표기하고 있다. 일본어를 읽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발음을 알려주려는 의도로 보

인다. 동시에 후리가나(*furigana*)가 있는 곳은 그것을 표기하고 없을 때는 간지(*kanji*)의 일반적인 독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아쉬운 점은 <메이지역>의 번역이 최소한 영어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어 번역 본문에 대한 음역만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모르는 독자들은 <메이지역>이 신명기 32:8-9를 어떤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아쉬움은 이어지는 다른 일본어 번역 성경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 이 저서를 개정할 일이 있다면 각 일본어 번역 성경들의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이지역>은 일본어 문어체(*Japanese written language*)가 급격한 변화를 거치는 시대의 고전 일본 문학 작품들(*wabun*)의 문체와 관습들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분명하다. <메이지역>이 이렇게 고전문학의 문체를 답습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로도 신성한 본문이나 품격이 높은 본문들은 가장 고귀하고 고전적인 문체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이 거의 만국 공통의 규범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규범이 지켜지지 않으며, 최근 수십 년 동안 번역 성경들은 현대적인 언어와 문체에 맞게 번역되어 왔다.

그렇지만 저자 코헨은 <메이지역>의 일본어에 관해서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예를 들어서 격조사(*case particle*)인 *wa*, *ga*, *no* 등이 <메이지역>에서 생략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번역된 문장들 곳곳에서 영어 번역본의 영향이 보이는데 특히 KJV의 번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코헨은 주장한다. 따라서 일본어를 모르는 학자들이 이 저서를 읽고 판단하기에는 일본어 지식의 공백으로 인해서 코헨의 분석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키네역>(The Sekine Translation, A-4)은 신명기 32:8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칠십인역과 사해사본에 따라서 MT를 수정해서 번역했음을 각주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손들”(children of God)이라고 번역했는지를 독자들이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오직 일본어 번역 본문과 음역(*transliteration*)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다. 단지 <세키네역>은 다른 본문 증거들에 의해서 MT를 수정하는 것을 일관성 있게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

<프란시스코회역>(Studium Biblicum Franciscanum, A-5)의 번역 본문에는 거의 한 쪽 분량의 각주가 달려 있는데, MT의 *benei Israel*을 *benei 'el* 로 수정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수정하게 된 것은 사해사본과 고대 번

역본들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나님의 자손들”이라고 수정한 번역에 대한 설명은 전통적이고 조화롭게 보이나, 학자들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붙이는 설명은 아니다. 이런 수정 번역에 대한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자손들”은 “아마도 여호와에게 종속된 신적인 공동체들”이며 나중에 천사들로 알려진 자들이라고 되어 있다. 고대 신화적인 맥락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신교적인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보고 있지만, 해석은 더 길게 이어져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숫자와 세계의 국가들 사이의 가능한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다.

180쪽부터 *YHWH*의 음역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 기원전 3세기에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은 너무 신성하기 때문에 발음할 수 없다고 보고, 'adonay(나의 주님)라는 단어로 대체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YHWH*의 번역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메이지역>의 번역자들은 중국어 성경 번역자들의 선례를 따랐지만, 메이지 시대에 일반적이었던 *kanji*를 사용해서 *YHWH*나 혹은 다른 이름들을 음역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의 각 책의 이름은 *kanji* 음역을 썼으나, 성경 본문 자체에 대해서는 *katakana*를 사용했던 것이다. 즉, 요나서의 경우에 책의 제목을 約拿(요나)⁷⁾라고 번역한 반면에, 요나서 속의 본문에서는 ヨナ(요나)로 번역하는 식이다. *YHWH*에 대해서 메이지 번역자들은 エホバ(*ye-ho-ba*)라고 번역했는데, *katakana*의 이 세 음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이고 메이지 시대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보통 첫 음절은 *egg*를 발음할 때의 *e*와 같은 발음이 나지만, 역사적으로 'ye'라고 발음될 수도 있다. 그런데 *ye*라는 음절은 일본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현재의 도쿄 지역에서는 19세기까지 사용되었다. 따라서 エホバ는 *yehoba* 혹은 *ehoba*라고 발음될 수 있다. 이는 후대의 학문적인 형태인 'Yahweh'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세 음절을 가진 전통적인 'Jehovah'에서 유래된 듯하다. 왜냐하면 'v'라는 발음은 일본어에 없기 때문이며, 동시에 *katakana*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vah'가 'ba'로 대체된 것이라고 본다.

저자는 본문 번역에 있어서 본문 수정의 접근법을 보여주는 시험 케이스로 창세기 4:8을 선택했는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 중에서 가인이 아벨과 이야기하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상황을 묘사한 구절이다. MT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뭐라고 말했는지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다.

7) 約이라는 한자는 1) 맺을 약 2) 부절 요 3) 기러기발 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에는 부절 요라고 발음하고, 約拿(요나)로 읽는다.

ASV(1901)는 KJV를 따라서 MT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고 있으나 RSV(1952)는 본문을 수정했다. 반면에 NAS⁸⁾(1995)는 다시 MT와 같이 번역했다. 저서에서는 MT와 KJV의 본문을 인용했으나, 정작 결정적인 RSV와 NAS의 본문은 인용하지 않고 있어서 독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다. 따라서 필자는 저서에서 언급된 영어 성경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여기에 인용한다.

KJV	And Cain talked with Abel his brother: and it came to pass, when they were in the field, that Cain rose up against Abel his brother, and slew him.
ASV	And Cain told Abel his brother. And it came to pass, when they were in the field, that Cain rose up against Abel his brother, and slew him.
RSV	Cain said to Abel his brother, " <u>Let us go out to the field.</u> " And when they were in the field, Cain rose up against his brother Abel, and killed him.
NAS	Cain told Abel his brother. And it came about when they were in the field, that Cain rose up against Abel his brother and killed him.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어 성경들도 이렇게 본문 수정을 받아들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 과연 일본어 번역 성경들의 경우는 어떤 것인가를 저자는 비교하고 있다.

우선 <메이지역>은 MT와 같이 번역했고 이는 19세기의 중국어 성경들의 선례를 따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일본성서협회(JBS)의 번역자들은 창세기 4:8의 본문을 수정했는데, 번역자들이 신명기 32:8에서는 본문을 수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에 있어서 본문 수정 여부의 차이는 신학적인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창세기에서 가인이 했던 말을 첨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신명기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자손들”(children of Israel)을 “하나님의 자손들”(children of God)이라고 수정하는 것은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몇 후대의 일본어 성경들은 가인이 했을 수 있는 말을 괄호 사이에 첨가했으나, 본문이 수정되었다는 설명은 없다. <구어역>(The Colloquial Translation, A-2)은

8) 저자는 194쪽에서 NASU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오기로 보이며 NAS 혹은 NASB(New American Standard Bible)라고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SV와 같이 본문을 수정했다.

이 부분에서도 아쉬운 점이 발견되는데, 앞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일본어 번역 성경들의 번역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 주었으면 하는 점이다. 특히 RSV와 같이 MT를 수정 번역한 구어역의 일본어 본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붙여주는 것은 이 부분의 저자의 설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오히려 일본어를 알파벳으로 음역하는 것보다는 영어 번역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일본어를 모르는 독자들은 각 일본어 성경들의 창세기 구절 번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12개의 일본어 성경들의 창세기 4:8의 번역들을 간략하게 분석한 뒤에 각각의 성경들이 신명기 32:8과 창세기 4:8의 번역에 있어서 본문을 수정해서 번역했는지 여부를 표로 만들어서 붙여 두었다. 전통적인 번역자들(A-1, A-3)은 MT를 따라서 번역했으며, 보수적인 기독교 번역자들(A-2, A-6a, A-7, A-8, A-9, A-10)은 창세기 4:8에서 칠십인역과 다른 자료들에 의거해서 빠진 부분들을 첨가했으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신명기 32:8의 번역에 있어서는 본문 수정을 피했다.

3.2.2. 제5장: 다양한 번역들 속 나타난 시편 23편 비교연구

시편 23편이 제5장 연구의 초점인데, 여기에서의 목표는 23편에 나오는 각각의 구절이 아니라, 23편 전체의 번역을 분석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시(詩)’의 번역과 히브리어 구문을 번역하는 법, 문화적 현상의 반영 등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것이었다. 많게는 27가지의 시편 번역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시편은 성경의 어떤 책들보다 일본어로 많이 번역된 책이다. 그래서 광범위한 일본어 번역의 폭을 보여주고 번역의 ‘충실함’(faithfulness)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메이지역>과 다른 초기의 번역들을 소개하고, 1950년대의 개신교의 번역들과 1930년대와 1980년대의 가톨릭 번역들도 살펴보고 있다. 동시에 가장 최근의 번역 성경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성서 신공동역>(1987)과 <이와나미 출판 사역>(2001)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총 150편의 시편 중에서 특히 23편이 선택된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한 편의 시편 전체 구절을 상세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짧은 시편들 중에서 한 개를 고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시편 23편은 가장 인기 있는 시편이고, 예배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모두 사용하고 있다. 기독교 문화가 뿌리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에서는 이 시편의 구절이 다양한 언어로 인용되고 있는 점도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일본어 성경

의 번역자들이 이 시편의 단어들을 어떻게 일본어와 일본 문화 속으로 이식(transplant)하려고 애를 썼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것으로 생각했다. 동시에 간단해 보이는 이 시편은 몇 가지의 언어적이고 주제적인 어려움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모든 번역자들이 반드시 이런 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이런 면에서 시편 23편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앞의 4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저자는 시편 23편의 히브리어 본문과 이에 대한 KJV, NJB, JPS 영어 성경들의 본문을 소개해 준다. 간단한 설명이 있고 나서 <메이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번역 성경들의 시편 23편에 대한 일본어 본문과 이에 대한 음역을 기록해 주고 있다. 이어서 번역 성경 본문들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역시 번역된 일본어 본문에 대한 영어 번역이 없기 때문에 독자들은 메이지역의 시편 23편 번역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이것은 너무나 큰 아쉬움을 준다. 아무리 번역상의 문제점들을 잘 설명한다고 해도 실제로 일본어로 번역된 본문의 내용을 영어권 독자들이 알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5장의 셋째 단락(5.3)에서는 시편의 단어들과 표현들을 총 20가지를 선택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시편의 제목(מִזְמוֹר לְדָוִד)이나 YHWH ro'i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특히 *mizmor ledavid* 같은 용어는 구약성경에서 오직 시편에서만 나오고 있으며, 시편 23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시편들의 제목으로도 사용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mizmor*라는 용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어로 번역되었는데, 개신교의 번역들은 *uta*(歌)를 선호하는 듯하고, 가톨릭은 *shi*(詩)를 선호하는 것을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현대 일본어 용법에서는 *uta*는 부르는 노래(song)와 일반적으로 연관되며, *shi*는 다양한 종류의 기록된 시(詩)와 관련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일본어 용법을 고려할 때, *uta*가 더 적합한 것으로 저자는 보고 있다.

다윗이라는 이름도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음역이 되었는데, 개신교 번역이 마지막 음절을 A-1을 따라서 de로 음역한 것에 비해서 가톨릭 번역은 do로 음역했다. 개신교와 가톨릭이 연합해서 번역한 성경(A-11)은 개신교의 음역을 사용했다. 특별위원회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히브리어 이름들의 음역에 대해서 규정하는 소책자를 발행했는데, 실제로 그 소책자에는 다윗에 대해서 *dabido*(ダビド)라고 목록에 올렸으나, 정작 본문의 최종 번역본에는 *dabide*(ダビデ)라고 표기했다.

저자는 시편 제목에 대한 다양한 일본어 성경 번역들을 비교해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전히 그 제목들이 영어로 어떤 의미인지를 번역해 주

지 않고 있다. 오직 알파벳 음역만 표기하고 있어서 독자들은 *davide*, *davido*, *dawido*, *dabido* 등의 구별만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251-252쪽에서는 많은 일본어 성경들이 시편 23편에 설명이 붙은 제목을 첨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일본어 본문, 음역, 그리고 **영어 번역**이 붙어 있다. 이렇게 영어 번역이 붙어 있기 때문에, 독자로서 각각의 일본어 성경을 비교하는데 훨씬 용이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방법이 본 저서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5.5에서는 시편 100편에 대한 가장 초기의 번역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초기의 선교사 번역자들인 베르벡과 윌리엄스(C. M. Williams) 주교의 미발표 문서들에 대한 검토를 통한 번역자의 작업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외국 선교사들과 그들의 일본인 조사들(assistants)이 번역 과정에 있어서 흥미로운 상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3.2.3. 제6장: 다양한 예들을 통한 번역 성경들의 비교 연구

제6장은 앞선 4장과 5장과는 다르게 구약성경의 몇 가지 책들의 성경 구절들을 여러 일본어 성경들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고 있다. 우선 창세기(1:1-3), 잠언, 욥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6장의 연구 목표는 이전 장들에서 소개되지 않은 몇몇 개인 번역자들의 작품들 중에서 예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은 구약성경의 책들의 번역된 결과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즉, 사람들 간의 대화, 내러티브, 그리고 잠언 등과 같은 내용들의 번역 결과를 소개하려는 목적이 있다.

먼저 6.1에서 창세기를 다루고 있는데,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고 창조와 타락 등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보니 창세기 전체와 일부가 시편 다음으로 일본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다. 우선 <메이지역>보다 먼저 나온 하마다 히코조(Hamada Hikozō, 1866)의 번역을 소개하고 있다. 하마다는 영어 성경에서 번역했지만 중국어 번역 성경도 참고했음이 틀림없다. 하마다는 요코하마에 있는 선교사들과 교류했는데, 그들이 이미 중국어 성경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또한 하마다가 번역하는 작업에 몇 명의 선교사들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자신은 이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당시에 아직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여기에서 중국어 성경인 <브리지만-컬버튼역>(the Bridgman-Culbertson's Version)의 창세기 1:1-3 본문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저자가 이 중국어 본문에 대한 영어 번역을 붙여놓지 않아서 독자들은 중국어에 능통하지 않

으면 이 중국어 번역의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저자는 이에 아랑곳 없이 설명을 하고 있다. 1절에 있어서 중국어 성경의 영향은 분명한데, 특히 創造(sōzō)라는 단어를 하마다가 선택한 것은 중국어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이어지는 비교 분석에서 <메이지역>을 비롯해서 다양한 개인 번역들도 함께 비교되고 있다. 특히 <메이지역>도 중국어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주고 있다.⁹⁾ 이런 면에서 최초의 일본어 성경도 비록 영어 성경들도 참고했지만, 중국어 성경들의 영향을 크게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분석 결과는 우리말 최초의 성경인 『성경전서』의 연구에도 자극을 주어, 『성경전서』가 그 번역 과정에서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에 영향을 크게 받았음이 국내 학자들의 연구들을 통해서 점차 밝혀지고 있다.¹⁰⁾

잠언의 경우에도 1:1-6을 비롯해서 6:20 등의 다양한 구절들이 일본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비교 분석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6.2.2에서 잠언 1:8을 다룰 때 특별히 히브리어 본문을 먼저 표기해 주고, 일본어 본문과 알파벳 음역을 표기하고 있는 사실이다. 여전히 일본어 본문에 대한 영어 번역은 첨부하지 않고 있어서 독자들은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와 일본어 알파벳 음역으로만 일본어 번역을 상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동시에 1:8에 대한 설명에서 <유아사역>(Yuasa's Translation, 1936)은 <메이지역>의 개정판인데,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없지만, 몇몇 경우에 더 ‘나은 발음’을 가진 번역을 해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하지만 본 저서의 독자들은 일본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이런 ‘나은 발음’을 공감하기 힘들다.

저자는 유아사의 번역에서 일본어 단어들의 사용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이 번역이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서서도 많은 경우가 그랬지

9) 중국어 성경의 번역 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요우빈 저, 구향화, 이환진 번역, “왕타오, 중국어 성경 번역과 그의 해석학 전략”, 『성경원문연구』 37 (2015), 273-291;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왕대일 편,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주석과 성서 번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413-499.

10)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과정에 대한 기초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7-34; 이환진, “쉐레셰브스키 주교와 초기 한글성경-전도서 1장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8 (2011), 35-57; 이환진,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대본 고찰-시편(85:10-13)과 잠언(1:1-7)과 욥기(1:20-2:6)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7 (2010), 31-55; 김사오, “한국어 개역 성서의 용어가 일본어 번역 성서로부터 받은 영향-창세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8 (2001), 216-230;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번역대본 가능성-출애굽기 4:13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8 (2021), 7-25;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복합적 번역대본 가능성-출애굽기 4:8을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9 (2021), 7-28.

만 저자는 일본어 성경들 속에 나타난 일본어 단어들의 선택과 번역 결과들을 비교 분석하는 데 주력한 나머지 일본어 성경들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런 의미에서 본 저서는 일본어가 모국어인 성서학자들이나 일반 독자들이 일본어 성경의 번역들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의 뜻이 제대로 번역되었는지에 관해서는 거의 분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6.4에서는 연구의 초점이 바뀌어서 헤브라이즘(Hebraism)이 일본어 성경에서도 감지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헤브라이즘이 많이 나타나 있기로 유명한 KJV와의 비교를 통해서 이 연구를 하고 있다. KJV는 초기 일본어 번역의 자료들 중의 하나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더욱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저자는 헤브라이즘이 일본어 성경 속에서 그대로 유지된 경우와 회피된 경우를 구분해서 비교해주고 있다. 먼저 유지된 경우를 보면, 잘 알려져 있다시피 KJV는 히브리어 본문을 가능한 한 직역(直譯)한 성경이다. 따라서 초기의 일본어 번역들도 이런 KJV의 번역을 따라서 히브리어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일본어로 번역했다. 결국 저자가 말하는 헤브라이즘은 본래 일본어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표현들을 번역 과정에서 사용함으로써, 이런 표현들이 일본어 용법으로 사용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1의 경우에 “And Adam knew Eve his wife”라는 구절에 대해서 모든 일본어 성경들은 성교(性交)(sexual intercourse)를 의미하는 일본어 표현을 사용하는 대신에, “to know”라는 동사로 번역함으로써 KJV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성경 독자들에게는 익숙하지만, *shiru*(知)라는 동사가 ‘성교’의 뜻으로는 대부분의 일본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다.

반면에 헤브라이즘이 회피된 경우는 창세기 16:2 등에서 볼 수 있는데, “And Abram hearkened to the voice of Sarai”라는 KJV의 번역에 대해서 일본어 성경은 아브람이 사래의 “voice”를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래의 말(words)을 들었다고 번역하고 있다. 즉, 히브리어에서 사용된 *kip*을 직역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사무엘상, 이사야 등의 구절들에서도 이렇게 헤브라이즘이 회피된 경우를 찾아서 설명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일본어로 번역될 때 히브리어에 상응하는 일본어 표현이나 단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JV를 따라서 직역한 경우들과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판단된다.

3.2.4. 제7장: 결론적인 관찰 내용들

마지막 장인 제7장은 구약성경의 일본어 번역의 본성(nature)에 관한 더 많은 관찰 작업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첫째, 사용 목적에 따른 번역들의 분류법이 제시되고, 이것이 성경의 문화적인 기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가 분류하는 방법은 번역의 목적, 성경의 사용과 독자에 따른 분류법이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일본어 성경들을 다음의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번역 성경들이 포함된다. 번역자들의 보수적인 견해로 인해 종교적 내용들이 향상되기 마련이다. 이런 종류의 성경으로는 <새개정역>(New Revised Translation, A-7)이 있다. 이 성경의 번역자들은 직역을 하려고 애썼으며, 복음적인 정신으로 번역 작업을 수행했다. 2)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번역했고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번역 성경들 중에는 그 번역 태도에 있어서 좀 더 조심스러운 형태를 취하는 성경들이 있다. A-1, A-2, B-1의 성경들이 여기에 속한다. 3) 종교적인 의도를 가진 학문적인 성경들이 있는데, 이런 종류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세키네역>(A-4)과 <프란시스교회역>(A-5)이 그것들이다. 4) 종교적인 의도가 없는 학문적인 번역 성경도 있다. 구약성경 전체가 번역된 성경들 중에서는 A-12가 유일하다.

둘째, 번역 성경들의 “충실함”(faithfulness) 문제가 다시 검토되고 있다. “번역학”(Translation Studies)의 틀 안에서 발전된 “Polysystem Theory”를 관찰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일본에서의 번역과 사회에 관한 특수하고 일반적인 관찰 결과로 인도해 주고 있다. 하나의 번역 성경이 원본과 동일한 책이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겨간다는 점을 제외하고도, ‘본문 자체’(the text itself)에 대한 이슈가 있다. 어떤 것이 성경의 ‘올바른 본문’(correct text)인가라는 질문을 저자는 던지고 있다.

최근에 발견된 엄청난 양의 판본들과 고대 번역 성경들, 그리고 성경 이외의 증거들에 기초해서 볼 때, 성경 본문은 점차적으로 더 유동적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항상 하나의 본문을 신성시하기 위해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는데, MT, VUL, KJV 등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새로운 번역 작업이 시작되면, 어느 본문을 번역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신학적인 문제점들이 대두되기 마련이다. 비록 번역 성경이 원본과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항상 성경 번역에 있어서는 번역 대본(source text)에 충실한 번역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번역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충실함’을 구성하고 있는가? ‘번역학’(Translation Studies)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경향은 ‘적합성’(adequacy)과 ‘수용성’(acceptability) 사이의 차이점을 사용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적합한 번역’(adequate translation)은 번역 대본과의 ‘기능의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을 추구하는 번역이다. 반면에 ‘수용적 번역’(acceptable translation)은 번역되는 언어의 언어학적, 문화적 체계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번역이다. 언어학적 단계에 있어서 이런 번역은 본문을 번역되는 언어의 구조와 언어적 규범에 종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단계에 있어서 이런 번역은 번역된 본문을 번역되는 언어의 문화, 즉 이데올로기, 관습, 풍속, 예의범절, 성(性)구별 등의 측면들에 맞춰 가는 것을 의미한다. 적합성에서부터 수용성으로의 연속성은 번역의 규범들의 체계 속에서 연구되는데, ‘다체계론’(polysystem theory)의 체계 속에서 재창조된다.

일본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새로운 번역 성경들의 출판을 기대하고 있다.¹¹⁾ 첫 번째로 나올 성경은 새로운 번역이며 오순절교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聖書-現改訳이 그 성경의 제목인데, 이 성경은 세 가지 판(version)으로 나오게 된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판(general), 판매용 소형 판(business), 그리고 연구를 위한 대형 판(study)이 그것들이다. 두 번째로 나올 성경은 일종의 개정판 성경이다. 新改訳聖書(New Revised Translation, A-7)의 새로운 판이며 2016년에 출판예정이라고 저자는 판단했다.¹²⁾ 세 번째로 나올 성경은 聖書協會共同譯(the new JBS version)인데, 현재 나와 있는 新共同訳(New Interconfessional Translation, A-11)의 명맥을 잇게 될 것이다. A-11과 마찬가지로 가톨릭과 개신교가 연합으로 번역하는 성경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의 구약성경의 지위(position)에 관해서도 몇몇 측면들이 검토되었고 이는 일본인 비평가들의 의견을 인용한 것도 있고, 일부는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들에 기초한 것도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저자는 이스라엘 태생으로서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종종 성경 내용에 대해서 방어적인 입장에 있었다고 한다. 항상 다른 언어로 번역된 표현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 외국어 형태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저자에게 기쁨과 때로는 고통을 주었다고 말한다. 종종 저자(코헨)가 자신에게 던진 질문은 ‘외국어로 번역된 성경의 독자들은 저자 자신이 히브리어로 읽는 구절들을 과연 어떻게

11) 본 저서가 2013년에 출판된 것이며, 서평을 집필하는 시점은 2021년임을 감안해야 한다.

12) <신개역>의 새로운 판은 저자의 예상과 달리 新改訳2017이라는 제목으로 2017년에 출간되었다.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본 저서를 집필하면서 일본인 독자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들을 접했고, 그중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보이는 한 가지를 인용하고 있다.

작가인 오가와 쿠니오(Ogawa Kunio)는 가톨릭 신자인데, <성서 신공동역>(A-11) 성경에 관해서 의견을 피력했다(1988). 특히 구약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에 주목하면서 오가와와는 성경을 읽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에 놀랐다고 한다. 즉,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익숙해 있던 그는 유대교의 경전으로서의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다. 구약성경을 기독교적으로 보는 관점은 선교사들에 의해서 일본인들에게 전해졌으며, 현재까지도 일본인들의 사고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또한 성서학자이자 성경 번역자인 쓰키모토 아키오(Tsukimoto Akio)에 따르면, 의미 있는 번역은 번역자 자신이 히브리적 사고와 믿음에 기초한 히브리어 성경의 모든 단어와 구절들을 직접 마주할 때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2000). 일본어 성경 번역의 체계에 있어서 이런 견해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 견해가 어느 정도는 <세키네역>(A-4)과 <이와나미 출판사역>(A-12)의 성경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부분적인 번역 성경인, <성경의 세계>(the World of the Bible, B-14)와 비기독교인 오가에리 요시오(Ogaeri Yoshio)가 번역한 전도서와 잠언(B-7) 등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나 이런 태도를 기독교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번역된 주류 번역 성경들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아직도 저자는 배타적으로 기독교 맥락 밖에서의 히브리어 성경의 기원과 그 역할이 일본 내에서 더 잘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저서를 집필하면서 산더미 같은 번역들과 연구 논문들을 뒤지면서 저자는 엄청난 분량의 번역 성경들에 매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거의 2세기에 걸쳐서 번역 작업을 수행했던 번역자들의 인생 역전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중국의 귀츨라프(K. F. A. Gützlaff), 오키나와의 베텔하임(B. J. Bettelheim), 뛰어난 번역자들인 헵번과 베르벡, 윌리엄스 주교와 니콜라이 대주교(Archbishop Nikolai),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선교사들은 그들의 목숨과 건강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본어 공부와 성경의 번역에 긴 세월을 헌신했다. 또한 일본인 조력자들도 있었다. 마쓰야마 타카요시, 우에무라 마사히사, 다카하시 고로(Takahashi Gorō), 그리고 오노 세이추(Ono Seichū)가 그들이다. 이들 외에 일본에 성경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첫걸음을 뗀 일본인들도 저자는 소개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장점과 약점이 있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했지만, 이들이 가진 공통분모는 성경을 히브리어와는 동떨어진 일본어로 번역하는 가공할 만한 과제에 뛰어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저서에 대한 저자의 바람은 효용 가치가 높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는 별개로 위에 언급한 번역자들의 감탄할 만한 노력에 대한 헌사(獻辭)가 되기 바라면서 이 저서의 한 장 한 장마다 이들에 대한 매혹적인 전설이 언급되었기를 또한 바란다고 쓰고 있다.

3.3. 부록

403-407쪽에 있는 부록(appendix)에는 메이지 선교사 회의에서 있었던 성경 번역에 대한 토론 내용이 실려 있다. 1883년 오사카 대회의 토론 내용에는 헵번에 의해 작성된, 성경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의 9가지 원칙들이 소개되어 있다. 그중의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성경 원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2. 성경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가능한 가감 없이 번역되어야 하며, 기록된 원문에 입각해서 그 표현과 특이한 관용어까지 번역되어야 한다. ... 4. 뜻이 애매한 문구들은 애매하게 번역되어야 한다. 번역자는 그 의미에 대한 해석(interpret)을 할 권리가 없다. 이상의 내용들을 헵번의 번역 원칙은 포함하고 있다. 1900년에 도쿄 선교사 대회가 열릴 때는 이미 성경에 대한 완전한 번역이 나온 지 12년이 되었을 때였다. 그래서 번역된 성경들에 대한 개정과 그 성경들의 유통의 문제들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3.4. 연대기, 용어사전, 참고문헌 등

408쪽부터 411쪽까지는 연대기(chronology)가 나오는데, 일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연도와 사건이 연대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또한 이 저서에서 언급된 모든 구약성경 번역들과 신약성경 번역들도 목록으로 기록되어 있다. 413쪽에는 용어사전(Glossary)이 있고, 417-432쪽에는 참고문헌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433-438쪽에는 일본어 구약성경 번역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이 각각의 일본어 번역 성경들이 인용된 쪽들도 정리되어 있어서 독자들이 찾아보는 데 매우 수월하게 만들었다는 장점이 있다. 439-442쪽에는 본 저서에서 인용된 인물들의 이름에 따른 색인이 정리되어 있다. 443-444쪽에는 성경 구절에 대한 색인도 마련되어 있으며, 마지

막으로 General Index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지명, 협회 등에 대한 내용이 색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4. 맺음말

이 저서는 영어로 출간된 이런 종류에 속한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경을 일본어로 번역하게 되었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특히 구약 성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본 연구서는 구약성경의 전체와 일부의 일본어 번역들에 대한 상세한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본어 번역 성경들의 역사와 이것들의 번역자들이 누구인지에 관해서 기술하고 있다. 다양한 일본어 번역 성경들로부터 수많은 인용문들이 히브리어 원문과 다른 번역본들과 비교되었고, 언어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비교 분석의 결과는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성경과 일본어 사이에 존재하는 광범위한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간격을 메꾸려고 시도했던 방법들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번역들이 일본 사회의 특정한 측면들과 그 일본 사회 속에서의 성경의 자리를 반영하고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었다.

저자의 분석은 정교하고 영감을 주며, 매우 흥미롭다. 저자는 그가 다루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그가 연구하는 주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방법론적인 문제점들을 잘 인지하고 있는데, 종교적인 용어들을 한 문화권에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동시켜서 번역하는 문제를 전문가답게 그리고 매우 명확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 저서는 학문적으로 우수한 연구서이며, 배울 점이 많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자는 지나치게 일본어 문체와 용법에 초점을 맞추고 각각의 일본어 번역 성경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일본어에 문외한인 학자들과 일반 독자들은 분석 결과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히브리어 자체의 구문과 용법들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다소 부족한 면도 보이며, 히브리어 ‘단어들’에 상응하는 일본어 단어의 번역에 주목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 있어서 일본어 단어들 자체가 주는 뉘앙스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동시에 저자가 다루는 성경 본문들이 신명기 32:8-9, 시편 23편, 창세기

1:1-3, 잠언 1:1-6을 비롯한 몇 구절들, 욥기 3:3-8 등의 구절들이다. 그런데 정작 신명기 구절은 13가지의 일본어 성경들을 비교하면서 무려 50여 쪽에 이르는 분량을 할애하고 있으며, 시편의 경우에는 무려 13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할애해서 여러 번역 성경들과 다양한 단어와 표현들을 분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창세기, 잠언, 욥기의 경우에는 10쪽 이내의 분량에 그치고 있다. 물론 저자가 모든 구약성경의 책들을 골고루 분석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각 책들의 분석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전체 구약성경의 일본어 번역에 대한 연구서로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4장의 경우에 아쉬운 점은 비교 분석되고 있는 13가지의 일본어 번역 성경의 번역 본문이 최소한 영어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독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어 번역 본문을 표기해 주고, 이에 대한 음역만을 기록하고 나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모르는 독자들은 <메이지역>을 비롯한 여러 일본어 번역 성경들이 신명기 32:8-9를 어떤 의미로 번역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아쉬움은 이어지는 다른 일본어 번역 성경들의 경우에도 똑같이 느낄 수 있다. 본 저서의 개정판에서는 각 번역 성경들의 일본어 번역 내용을 영어로 번역해서 표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히브리어 성경의 일본어 번역 성경들을 다루는 이와 같은 연구서의 성격상, 단어와 표현 등이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번역 구절이 영어권의 독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소개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이런 영어 번역이 각각의 일본어 성경 분석에 첨가되어 있다면 독자들도 자신들이 익숙한 영어 성경들의 번역과 비교해서 저자의 연구 결과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몇 가지의 아쉬운 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서는 한 나라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언어로 번역된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들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놓은 최초의 저서로서 학문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일본어 성경 번역의 역사와 더불어 성경 번역의 새 지평을 여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한글 번역 성경들에 대한 역사와 다양한 번역 성경들의 내용에 대한 비교 분석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바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말 번역 성경의 역사와 그 과정, 그리고 번역에 참여했던 번역자들의 정체(identity), 번역 과정에서 생겼던 다양한 문제점들과 논의할 이슈들을 철저히 전문가답게 연구한 저서가 하루빨리 나오기를 소망한다.

<주제어>(Keywords)

히브리어 성경, 일본어, 번역, <메이지역>, 선교사들.

Hebrew Bible, Japanese, Translation, Meiji Translation, Missionaries.

(투고 일자: 2022년 1월 25일, 심사 일자: 2022년 2월 1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4월 18일)

<참고문헌>(References)

- 김사요, “한국어 개역 성서의 용어가 일본어 번역 성서로부터 받은 영향 — 창세기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8 (2001), 216-229.
- 김정우, “우리말 초기 「시편」 번역본들(『시편촬요』[1898], 『성경전서』[1911])과 『개역』(1938)의 대본 문제와 번역 특징 및 그 수용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 『성경원문연구』 28 (2011), 7-34.
- 김중은, “구약성서국역사”, 『구약의 말씀과 현실: 심천(深川) 김중은 구약학공부문집』, 서울: 한국성서학연구소, 1996, 1-55.
- 김중은, “구약 국역사에서 Alex. A. Pieters의 위치와 의의”, 『구약논단』 27 (2008), 159-182.
- 대한성서공회,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한글 성서 전시회(자료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민영진, 『성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5.
-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II: 1945-2002』, 서울: 대한성서공회, 2020.
- 요우빈, “왕타오, 중국어 성경 번역과 그의 해석학 전략”, 구향화, 이환진 역, 『성경원문연구』 37 (2015), 273-291.
- 이만열, 옥성득, 『대한성서공회사 I: 조직·성장과 수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3.
- 이환진,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말씀의 뜻 밝혀 주시오 — 주석과 성서 번역』, 왕대일 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413-499.
- 이환진,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대본 고찰 — 시편(85:10-13)과 잠언(1:1-7)과 욥기(1:20-2:6)를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27 (2010), 31-55.
- 이환진, “쉐레셰브스키 주교와 초기 한글성경 — 전도서 1장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28 (2011), 35-57.
-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번역대본 가능성 — 출애굽기 4:13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8 (2021), 7-25.
- 장석정, “성경전서(1911)의 복합적 번역대본 가능성 — 출애굽기 4:8을 중심으로 —”, 『성경원문연구』 49 (2021), 7-28.

<Abstract>

Book Review - *The Japanese Translations of the Hebrew Bible: History, Inventory and Analysis*
(Doron B. Cohen, Leiden: Brill, 2013)

Sok-Chung Chang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The Japanese Translation of the Hebrew Bible: History, Inventory and Analysis (Leiden: Brill, 2013) is the first of its kind, that is, the first English scholarly book focusing on the history of translating the Hebrew Bible into the Japanese language. It compares and analyzes 12 full translations (A-1···A-12), 16 partial translations (B-1···B-16), 13 fragmentary translations (C-1···C-13), and 6 further editions of the Bible (D-1···D-6). The book consists of two main parts: part one (History and Inventory) and part two (Analysis and Translated Verses). Part one has three chapters. Chapter 1 is introduction which deals with The Bible in Japan (1.1), Christianity in Japan (1.2), Translation (1.3), and Scope and Method (1.4).

Chapter 2 talks about a historical review of Bible translation according to several periods: the Kirishitan Period (2.1), the Bible in China (2.2), the 19th Century and Early Meiji (2.3), from Late Meiji until World War II (2.4), and the Post-World War II Period (2.5). And Chapter 3 introduces various kinds of Japanese Bible in four categories: full translations (3.1), partial translations in book form (3.2), fragmentary translations, early digests and partial translation in magazines (3.3), and some further editions of the Bible, using previous translations (3.4).

Part two has four chapters. Chapter 4 focuses its study on Deuteronomy 32:8-9, and compares and analyzes 12 different full Japanese translations. In each translation, the author gives a Japanese translation of two verses and their transliteration. However, he does not give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e given Japanese translation of the verses. Unless the reader is fluent in Japanese, he/she could not understand what the Japanese translation means. With only the Japanese verses and their transliteration, the readers are unable to see what the author explicates.

Chapter 5 deals with Psalm 23 in various translations as well as the analysis of words and expressions like YHWH *ro'i*, *mizmor ledavid*, and many others. Furthermore, the author touches on the issue of *faithfulness* in the process of translating Psalm 23. In 5.5, he also talks about the three early versions of Psalm 100 and the identity of the translators. Chapter 6 chooses several examples of translation and compares them. Some passages from Genesis, Proverbs, and Job are picked and analyzed. In 6.4, Hebraism in the Japanese translations are discussed in two categories: Hebraism retained and Hebraism avoided. Chapter 7, the last chapter mentions several issues including *faithfulness* and new translation or revision. It ends with the author's personal perspective appreciating the enormous efforts of the missionary translators and the Japanese assistants.

Although there are some weaknesses in this book, the beneficial aspects are much more than enough. I hope someday this kind of study is published on the Korean translations of the Hebrew Bible.